

# 외국인 아내의 재해지 지원\*

재해지 민족지(民族誌)에 대한 한 소묘

## 이인자

재해지란 어떤 장소일까. 쓰나미에 의해 모든 것을 떠내려보낸 취락과 시가지를 돌아보면서 생각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은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는 광경과는 전혀 다른 박력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다. 비참한 일이 일어나서 생활이 바뀌고, 늘 함께였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장소.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평소에는 없던 사람이 찾아오고, 평소와는 다른 보람이 생기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에는 망설임도 있다. 그 정도로 진재(震

---

**이인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하고 교토대학 인간환경학 연구과에서 재일한국인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부터 일본 도호쿠(東北)대학에 재직하면서 이주자에 관한 연구(재일교포 출신 탈북자, 국제결혼 이주여성)를 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異文化における移住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表現の重層性: 在日韓国・朝鮮人の墓をめぐって」(『民族学研究』61-3, 日本民族学会, 1996年), 「移住者にとっての故郷と故郷離れ」(関根康正等 編, 『排除する社会・受容する社会』, 吉川弘文館, 2007年) 등이 있다.

\* 이 글은 『3·11後の多文化家族: 未来を拓く人々』(川村千鶴子 編著, 明石書店, 2012)에 실린 같은 제목의 글을 필자의 동의하에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災)의 상처는 깊고도 넓다. 진혼을 위해서라도 시간은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재해지가 갖는 힘에 주목하고 싶다. 평소에는 갚지 못하는 은혜를 갚게 하는 힘이,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힘이, 평소에는 나누지 못하는 정을 나누게 하는 힘이 재해지에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힘은 재해지 밖의 사람들에게도 작용한다. 파괴가 가지는 박력은 존재가 가지는 박력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은 재해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재건되는 망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 프롤로그

1980년대부터 신부감 부족에 고민하던 인구 과소지(過疎地)를 중심으로, 지금 도호쿠(東北) 지방에는 많은 아시아 여성들이 결혼해 살고 있다.<sup>1</sup> 최근에는 도시로 시집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으나 예나 지금이나 국제결혼을 한 많은 여성들이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 중에 일본에 오고 나서 일본어를 습득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며 그 고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창업하거나 하는 동안, 그 지역의 ‘인재’로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4, 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인재가 된 도호쿠 지방의 외국인 아내들의 조사 연구를 해왔다.

1 국제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시집 온 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한편, 인터뷰 조사 등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들어 연달아 간행된 노작(労作)으로 『무라의 국제결혼재고: 결혼이주여성과 농촌의 사회변용(ムラの国際結婚再考: 結婚移住女性と農村の社会変容)』(武田里子, めこん, 2011)과 『국제이동시대의 국제결혼: 일본의 농촌에 시집 온 중국인 여성(国際移動時代の国際結婚: 日本の農村に嫁いだ中国人女性)』(賽漢卓娜, 勁草書房, 2011)가 있다. 또 조금 오래된 것으로 정신과 의사 연구자에 의한 『국제결혼과 스트레스: 아시아로부터의 신부와 수용하는 일본의 가족(国際結婚とストレス: アジアからの花嫁と変容するニッポンの家族)』(桑山紀彦, 明石書店, 1995)과 르포작가가 쓴 『아시아로부터 온 신부: 맞이하는 측의 논리(アジアから来た花嫁: 迎える側の論理)』(宿谷京子, 明石書店, 1988)는 지금까지도 이채를 발하고 있다. 그 외의 참고문헌에 관해서는 다케다(武田)의 저작 권말에 상세한 일람이 있다.

3·11 동일본대진재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연구가 막 궤도에 오른 때였다. 조사에 협력해 준 사람들 중에는 지진 발생 직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전원의 안전이 확인되었다. 단, 몇 명의 집은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센다이(仙台)에 사는 필자는 재해지가 어느 정도 안정된 6월부터 조사 협력자와 지인을 위문하며 현지를 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진재가 일으킨 피해 양상을 격변한 사람들의 생활과 커뮤니티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부터 기록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만큼 피해는 크고 재해지역은 넓었다.

이 글에 기록되는 것은 재해지역과 재해지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다. 진재 전부터 필자의 조사에 협력해 주었던 두 외국인 아내에 의한 재해지 지원의 활동 기록이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틀림없이 재해지의 상황과 이재민의 생활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 진재 직후의 혼란

시노다 마키(篠田真紀) 씨는 1999년에 국제결혼을 통해 일본에 오게 되었으며, 현재는 시어머니와 남편, 딸과 함께 이시노마키(石巻) 시 교외에 살고 있다. 일본에 왔을 때는 전혀 하지 못했던 일본어를 노력 끝에 습득했지만, 더 실력을 쌓기 위해 센다이에 있는 일본어 학교에도 다녔다. 사는 곳 부근에 도로휴게소가 생긴 것을 계기로 김치 제조 판매를 시작하여, 타고난 활동력을 바탕으로 판로를 확대했다. 그 후 김치사업은 남편에게 물려주고,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교습하는 학교를 설립했다. 그녀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본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 불황에 잠긴 이시노마키 시의 경제적 환경 하에서 원하는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과 의논 끝에 방향을 전환하여, 외국인 지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NPO를 설립했다. 설립 기념식전에는 이시노마키 시의 시장도 출석할 정도로 지역의 다양한 지원자를 얻었다. NPO의 주요사업은 초급 일본어에서부터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일본어까지 폭넓게 가르치는 일본어 교실과 외국인을 위한 생활상담, 국제교류를 위한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중국어 교실, 아이들 대상 영어 교육 등이다.

휴대전화가 연결된 것은 지진 발생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무렵부터였다. 처음 전화가 온 것은 센다이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였다. 사실, 영사관에서는 그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사는 그녀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관에 몇 번이나 전화를 했던 것이다. 이는 마키 씨 가족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다. 지진 당일부터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쓰나미가 밀려오는 영상이 반복 보도되었다. 또,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크게 보도되었다. 뉴스 방송에서는 안부 확인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사관 전화번호도 자막으로 띄웠다. 때문에 가족과 친구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고, 영사관에서는 자국민의 안부 확인 작업에 쫓기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영사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관내에는 많은 유학생과 주재원 가족들이 여진을 염려하여 피난해 있었다. 피난자들은 직원들과 협력하여 식사 준비에서부터 영사관 일을 돕는 것까지 분담했다. 그 중에서도 전화 당번은 특히 힘든 일이었다. 재해지로 전화가 거의 연결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한국에서는 안부를 묻는 성화와 같은 독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확인이 안 되는 것에 초조함을 느껴 수화기 너머로 화를 내는 사람까지 있었다. 뉴스나 피난소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안부나 소재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그조차 쉽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결혼해 살고 있는 여성들의 안부나 소재 확인은 특히 힘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키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많

은 한국인 아내들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소 명부에도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영사관도 그녀들의 일본 이름을 거의 알지 못했다.<sup>2</sup>

마키 씨의 휴대전화가 연결됐을 때, 영사관 직원이 ‘다른 한국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물었던 것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로서도 이제 겨우 전화가 연결된 것이라 협력하고 싶어도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 쪽에서 지인의 안부를 묻고 싶었을 정도였다.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전화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마키 씨는 몇 명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한 명, 특히 마음에 걸리는 여성이 있었다. 히사기마쓰시마(東松島) 시에서 굴 양식을 하는 집으로 시집간 나나코(菜々子) 씨였다. 겨우 연락이 된 나나코 씨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쓰나미로 잃고 임신한 몸으로 어린 아이들 세 명을 데리고 이시노마키 시 시내의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이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피난소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라’ 했다고 한다. 재해에 대한 조위금(弔慰金)과 보험 이야기가 나온 직후였다. 분개한 그녀는 즉시 아는 보험대리점과 행정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거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평소 교류가 있던 자치체의 외곽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싱가포르에서 세 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와 있는데, 그들의 재해지 활동을 도와주었으면 한다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다른 피난소에서 서로를 만난 세 명은 목을 곳도 장비도 없는 상태였다(이시노마키의 3월은 꽤나 춥다). 할 수 없이 그 날은 그녀의 집에서 재우기로 했지만, 세 명은 일본어

2 나중에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지진 대응을 한 결과, 영사관은 그때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도호쿠 지방에 사는 자국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도 전혀 하지 못했다. 의논 끝에 현 상황에서 재해지에서 봉사활동을 무리하게 계속하는 것보다 나나코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센다이로 돌아가 그녀들의 구조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날 그들은 나나코 씨 가족과 함께 센다이 영사관으로 가서, 마키 씨가 미리 연락해 둔 한국의 신문기자와 나나코 씨를 만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자재를 이용해서 나나코 씨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유튜브(YouTube) 통해 세계에 퍼뜨리기도 했다. 그 후에도 어느 지인의 요청으로, 한 한국 기독교단체에서 파견한 봉사단체를 현지에서 안내하기도 했다.<sup>3</sup> 하지만 휘발유 보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요청과 의뢰에 응하기는 힘들었다.

## NPO로서의 지원활동

마키 씨가 대표를 맡은 NPO도 지진 후 한 달 이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네 명의 직원이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3월에는 교실 학생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벅찼다. 애석하게도 어학교실 학생 한 명이 쓰나미에 희생되었다. 4월에 큰 여진이 있는 후 서서히 휘발유 공급태세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물건 부족 현상도 조금씩 개선되어 갔다. 계절도 빨리 변해갔다. NPO 직원이 모여서 금후의 활동 방침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었던 것도 4월 말이 되어서였다. 마침 그 전 해에 신청했던 문부과학성 조성기금 프로젝트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일본어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것이 채택되었다. 이전 해에는 탈락했던 기금이였다. 진재 후 의 기소침해 있었던 직원들에게 이 소식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 모처럼 지

3 마키 씨가 안내한 기독교 교단은 개신교계 요한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으나, 이 외에도 다수의 교회가 자원봉사팀을 파견했다. 일본 종교교단도 재해지에 지원금과 봉사자를 다수 보냈다. 그러나 언론은 마치 합의라도 한 듯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원을 받게 되었는데 진재 피해를 이유로 일본어 교실 운영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NPO활동도 계속해야만 했다. 함께 의논한 결과 결론은 금방났다. 직원들은 그 날부터 매일 같이 교실 겸 사무실에 모였다.

그러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당장의 재원(財源)이 없었다. 각자 1만 엔씩 모아서 교실 유지비를 충당했다. 조성기금에 의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10월까지 NPO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해 직원 전원이 함께 모색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재해지 지원사업과 활동 조성기금을 몇 가지 찾아, 그 중에 JPF와 공익법인협회의 활동 조성기금에 응모하기로 결정했다.<sup>4</sup> NPO 법인의 직원이라 해도 동시에 주부이기도 한 여성 네 명(일본인 2명, 한국인 1명, 중국인 1명)으로 구성된 작은 집단이었다. 이러한 네 명이 익숙하지 않은 조성기금 신청서류를 쓰고 응모하였던 것이다.

신청한 지원활동 내용은 장보기 대행이었다. 서류를 쓰고 있던 5월 무렵에는 이시노마키 시 안에서도 쓰나미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지역의 상점과 슈퍼마켓은 이미 영업을 재개했고 물류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연안지역에서는 재건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로 이외에는 잔해 철거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은 계속 남아 있었다. 그/그녀들은 피난소에도 가지 않고(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스스로 나와서) 피해를 면한 자택 2층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차도 떠내려가버려 물건을 구입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장보기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해지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특히 지진 직후 4~5개월이 그랬다. JPF에서 지원 내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이 6월, 지정되었던 활동 개시 시기가 7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자택에서 생활하

4 JPF는 국제 인도지원조직인 '재팬 플랫폼'의 약칭이다. 동일본대진재의 지원활동을 하는 NPO 등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 살기(共に生きる)' 펀드를 창설했다.

는 피해자에게도 이시노마키 시 쪽에서 도시락이 지급되었던 것이다.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차를 융통한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났다. 장보기 대행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었다. 조금 더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모든 직원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녀들도 이재민이었다. NPO의 다른 활동 멤버도 마찬가지였다. 활동자 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할 여유가 지진 후 2~3개월 단계에서는 없었다.

## 지진 피해자들과의 접촉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보기 대행 활동에는 또 다른 의의가 있었다. 활동을 시작한 7월은 매우 더운 시기라 햇볕이 내리 쬐는 가운데 먼지가 많은 재해지를 도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무척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한 집 한 집을 돌면서 자신들의 활동 취지를 설명하는 데 고생했다. 주민 중에는 장보기 대행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업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과, 이상한 사업에 속는 게 아닌가 하고 미심쩍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무해한 사람이라는 것, 같은 이재민이라는 것, 활동 조성금을 얻은 NPO의 멤버로서 재해지 지원을 하기 위해 돌고 있는 것 등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수고를 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지구(地区)를 매일같이 호별로 방문해서 도는 동안에 주민들과 얼굴을 익히게 되어 점점 친근감도 가지게 되었다. 혼자 생활하는 어떤 주민은 장보기 의뢰를 받으러 방문할 때마다 모기향 한 상자를 부탁해 왔다. 다른 노인분도 매번 자그마한 물건을 하나 의뢰해 왔다. 딱히 부탁할 물건은 없지만 어찌됐든 집 안에 초대해 차를 대접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집안이 아니라 동네 입구 즈음에 앉아서 마키 씨 일행이 오는 것을 기다리



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들 정이 그리운 거구나’라고 느낀 마키 씨 일행은 장보기 대행보다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활동의 중심으로 해나갔다.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94세 할머니는 계속 글짓기를 해 왔는데, 쓰나미로 많은 작문들이 떠내려가버린 것이 가장 슬프다고 했다. 어느 중년 여성은 본래 4인 가족이었는데 쓰나미로 가족을 잃어 갑자기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며,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쓰나미에 희생되어 홀로 생활하게 된 한 할머니는 지진 직후 쓰나미를 피해 나온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여 며칠 동안 10명 이상이 공동생활을 했던 경험을 소중한 추억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었다. 쓰나미에 떠내려가던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참하여 문장으로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인 광경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접하게 되는 한편, 지구 내에서 생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하나씩 듣게 되었다. 지인에게 부탁해 놓았던 차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던가, 독거노인이었던 분이 자식과 동거하게 되었다던가, 지진으로 인한 마음고생으로 할머니가 입원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일들이다. 어느새 동네 사정에 가장 밝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보기 대행을 시작한 즈음부터 의뢰를 해 온 사람들 중에 고야마(小山) 씨라는 70대 할아버지가 있다. 집은 넓었지만 1층 부분이 쓰나미로 떠내려간 탓에 ‘완전히 파괴된 것(全壞)’으로 피해 판정을 받았다. 지진 전부터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쓰나미로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없어졌기에 홀로 고립된 상태였다. 마키 씨 일행이 오는 것을 언제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처음에는 바짝 여위어 있어서 “식사 제대로 하고 계세요?”라는 말이 인사 대신이었을 정도였다.

교류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 또 하나의 지원단체에서 활동자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수여식에 갔다가 마키 씨는 한 봉사단체를 만났다.

그 책임자로부터 멤버는 많은데 활동 거점이 없다는 상담을 받고 떠오른 것이 고야마 씨의 커다란 집이었다. 고야마 씨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오랫동안 목수일을 해 온 고야마 씨는 당장 부서진 집의 수리에 착수했다. 파견된 자원봉사 선발대와 함께 1층의 응급 수리를 마친 후, 그곳을 그들의 캠프로 사용하게 하였다. 모여든 다국적 자원봉사자들은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시내 각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고야마 씨는 자원봉사 캠프의 주인으로서 여러 모로 동거인들을 보살피주며 바쁘게 지내는 듯했다. 그 때문인지 7월에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몰라볼 정도로 활기를 찾았다. 재해지에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평소보다 절실히 필요하고, 평소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며, 평소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처음 지원단체가 정했던 3개월간의 활동 기간이 끝나 JPF에 사업 보고를 하러 갔다.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장보기 대행 수요는 더 이상 없다고 보고했더니, 활동 기간 동안 쌓은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재해지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겠냐고 타진해 왔다. 새로운 활동 조성기금을 특별히 만드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거기서 마키 씨 일행이 생각한 것이 재해지 지킴이(見守り隊)였다. 가설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치체 직원에 의한 순회와 상주가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해 가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허술하기 십상이었다. 재택 이재민은 드문드문 떨어져 살고 있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기관도 없었기 때문이다. 장보기 대행 때문에 한 집 한 집 방문했던 마키 씨 일행은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독거 고령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었다. 마키 씨 일행에게 안성맞춤인 지원활동이었다. JPF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곧 특별조성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11월부터 지킴이 활동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외국인 아내에서 지역 주민으로

마키 씨는 일본에 온 지 12년이 되었다. 이시노마키 시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쪽 살아왔다. 이 고장에서 여러 인맥도 생겨 최근 7년 동안 김치의 제조와 판매, NPO 설립과 운영 등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언어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숙달되었고, 최근에는 교섭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 적도 없다. 하지만 어딘가 아직 자신이 손님 같은 느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고향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뿌리박고 정착한 느낌도 들지 않았다. ‘언제쯤이 되면 나는 손님 신세를 면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진재가 일어났다. 진재는 익숙했던 시내 풍경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들을 크게 바꾸었으며, 마키 씨 자신마저도 변화시킨 듯했다. 이번에 장보기 대행 지원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 주민이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키 씨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과 활동해 온 일이 생각 외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보기 대행 활동 중에 배부한 지원 내용 설명서에는 NPO 단체명과 마키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김치, 이 사람이 만든 거죠? 저 무척 좋아했어요”라며 눈앞에 본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칭찬해 주는 사람과, “한국어 교실 열고 있는 곳이지요? 그쪽에는 물이 안 넘쳤나요?”라며 도리어 이쪽 걱정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에 가벼운 놀라움과 쑥스러움을 느꼈다. 동시에 자신이 해온 일들이 조금은 고장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생각되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또 하나, 지진이 지역에서 외부인을 받아들일 여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그 지역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

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재라는 불행한 일이 있을 후 지원활동이라는 형태로 지역에 뛰어들어보니 의외로 주민과의 사이에 벽도 거리도 없었다. 보통 때 같으면 외국인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김치의 제조 판매를 시작했을 무렵의 경험으로부터 마키 씨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진과 쓰나미는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재해지역의 일상적인 교류와 당연시되었던 방식을 뿌리부터 무너뜨려버렸다. 이방인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 외부에서 사람을 메워야 하는 공간이 그곳에 생긴 것이다. 지진은 고장에 무자비한 파괴를 몰고 왔다. 하지만 파괴 후에는 반드시 신생과 재생이 온다. 재해지에는 이미 새로운 사회적인 연결 고리와 새로운 지역 활동이 싹트고 있었다.

## 마사지에 의한 지원 활동

마키 씨 일행의 NPO는 또 하나, 전혀 다른 타입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을 받아, 재해지에서 이른바 ‘뷰티 힐링 마사지(bauty healing massage)’를 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마사지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 미용업계 사람이거나 안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가설주택의 집회장이나 NPO의 여학교실 등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각종 마사지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전문가에게 협력을 부탁하는 일은 꽤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얼굴 미용 마사지, 발 마사지, 중국 전통 지압 마사지, 림프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술가들이 모여주었다. 반 이상은 스스로 재해를 당한 사람들로, 때가 때이니만큼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협력해 주었다. 그 중에는 집이 떠 내려가 자신들은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면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 참여한

모녀도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무상 제공해 준 고가의 크림을 넉넉히 쓰고, 미용과 건강의 프로들이 무료로 시술해 준 덕택에 가설주택에서 실시한 지원 활동은 대성황이었다.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5개의 가설주택을 돌았는데, 매번 집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어루만져주니까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라도 지진의 공포를 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할머니는 “영감, 뭐랄까, 이거 좋네”라고 흡사 예전과 같은 일상이 한순간이나마 돌아온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했다. 한 사람 당 한 번의 서비스밖에 제공되지 못했지만, 지진의 기억과 장기화된 가설주택에서의 생활로 심신이 지친 여성들에게 잠시 동안의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었던 것에 마키 씨와 직원들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이 활동의 소기의 목적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다. 가설주택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희망자가 쇄도하여 많은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되도록 여유 있게 수다를 즐기면서 여성들끼리 교류하고 싶었던 것이다. NPO의 어학교실을 마사지 시술 장소로 사용했을 때는 그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었다. 평소 신세를 졌던 고장 사람들이나 어학교실에 다니는 일본인, 외국인 학생들과 그 가족들, NPO활동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회장(会場)은 즉석 힐링 살롱(healing salon)이 되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지진 당시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일 등에 대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때로는 킁킁거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었다. 마사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시술자들은 다 함께 여성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사지와 수다로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이 그곳에 있었다. 동시에 그 공간이 외국인 아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곳이기도 했다. 그 녀들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 행동 범위가 지진에 의해 더 좁혀져서 가정 안에 갇혀 있기 일쑤였다. 이런 장소에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사회를 향

한 통로가 열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마사지에 의한 이재민 지원은 마키 씨에게 두 가지 면에서 기쁜 것이었다.<sup>5</sup> 첫째로 자신들의 지원활동이 한국 기업이 내준 지원금으로 실현되었던 점. 둘째로 그 지원활동으로 이제까지 마키 씨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었던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점이다.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마키 씨의 모국이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일본에 대한 애착이 많지만, 한국은 역시 마키 씨의 고향이다. 마키 씨는 모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재해지를 향한 선의를 자신이 매개하여 일본 이재민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자에게 자기 ‘나라들’ 간의 인연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게다가 마키 씨가 기획, 입안을 한 지원활동의 내용은 최근에 일본에서도 평판이 좋은 한국 화장품을 아낌없이 쓰는 마사지였다. 그것은 재해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활동임과 동시에 한국 화장품의,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데 공헌하는 활동이었다. 국제 간 이주자가 자기가 속한 ‘나라들’ 쌍방에 동시에 공헌하게 되었는데 기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지원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 같은 기쁜 경험은 마키 씨에게 양국 간 인연의 매듭이라는 자신의 위치 및 두 가지 문화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5 재해지에서 활동하는 지원자와 봉사자가 활동 과정에서 용기를 얻거나 좋은 추억을 만들거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리해서 금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원자와 봉사자가 자신들의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경험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거나 생활의 활력소로 삼는 것으로, 더 많은 새로운 봉사자가 재해지와 주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지원 활동에 참가해 주는 편이 재해지 측에서도 감사한 일일 것이다. 10월 말 시점에서 봉사자수가 피크 시의 20% 정도로 줄어든 현 상태를 감안할 때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 국제 이주자의 갈등

그러나 국제 간 이주자는 때로 이주자 특유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번 지진은 이런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이주자들은 피해 규모의 크기와 원전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모국에 귀국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 남을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했다.

마키 씨도 그 선택을 망설이며 지진 후 당분간 갈등을 겪었다.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진 직후부터 쓰나미 영상이 대대적으로 방영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위기적 상황이 거듭 보도되었다. 마키 씨 고향에 사는 어머니는 이러한 영상과 사진을 연일 접하고 일본에 있는 딸과 손녀를 걱정할 나머지 앓아누울 정도였다. 한국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재난을 겪은 경험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고 나서는 아픈 어머니로부터 일본의 가족 모두가 당분간 방사능과 여진 걱정이 없는 한국에 와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화가 몇 번이고 걸려왔다. 남편에게 의논해 보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절대로 안 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키 씨와 딸만이라도 한국에 오면 어떨까. 불안에 떨고 있던 한국의 가족들은 이렇게 일본에서 탈출할 것을 재촉해 왔다.

고령인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초등학생인 딸을 생각해서라도 원전에 의한 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국에 일시적으로 피난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었다. 다행히 딸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면했지만 지진으로 인해 집안은 엉망이었다. 라이프라인이 회복되지 않아서 뒷처리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을 내버려두고 귀국하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만약 무리해서

귀국하게 되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일본에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될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마키 씨가 갈등하고 있을 때 행정 관계 단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안부 확인을 위한 전화였는데, 지진 후 즉시 모국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키 씨가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듯한 눈치였다. 재해지로부터 피난해서 귀국하는 것이 같은 지역에 사는 일본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하게 만든 전화였다. 며칠 후, 마키 씨는 갈등을 멈추고 일본에 남기로 결정했다.

마키 씨가 겪은 갈등은 재해지로부터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외국인 아내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곡창지대로 유명한 야마가타(山形) 현 쇼나이(庄内) 지방은 지진의 직접적 피해는 거의 없었다. 휘발유 부족과 그에 동반된 다소의 혼란은 있었지만 매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 아내들에게는 고향으로부터 귀국을 재촉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었다. 결혼해서 쇼나이 지방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 10명이 모여 만든 ‘학의 모임(鶴の会)’이라는 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누거나, 겐돈 정산을 하거나 일거리를 융통하곤 해왔다. 그 멤버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퍼지고 있었다. 특히 아이를 한국에 남겨두고 일본인 남편과 재혼한 여성 6명은 귀국과 잔류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진 일주일 후, 모임의 리더 격인 하루코(春子) 씨는 멤버들을 자택에 초대해 식사 모임을 가졌다. 모두의 고민과 갈등에 귀를 기울인 후, 하루코 씨는 남편과 시부모를 일본에 남기고 귀국하는 것은 훗날 문제를 낳을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일본에 남아 자신들의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주장했다. ‘가능하다면 재해지에 가서 전이라도 나눠줍시다’라고도 말했다. 모두들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는지, 결국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일본에 남았다. 그 한 명도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에 불과했다.



## 목숨을 건 이재민 지원

오시마 하루코(大島春子) 씨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쇼나이 지방 변두리에 위치한 산간부로 시집을 왔다. 다 합쳐서 11채밖에 없는 취락이었다.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말을 배우고 아이들을 낳아 키웠다. 시가지에서 농산물을 직판하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다가 하루코 씨도 김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의 미각에 맞는 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몇 가지 독자 상품도 개발했다. 지역 즉관회나 직판 부스에는 반드시 한복을 입고 나가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물산전에도 초청되어 참가했고, 쇼나이 지방의 다문화 공생이나 한일 교류에 관한 다양한 모임과 이벤트에도 자원 봉사자로 참가하여 인간관계를 넓혔다. 고장에서의 이러한 인간관계는 지금도 하루코 씨의 큰 재산이다.

2003년 이후 소위 한류 열풍을 업고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새로운 공장을 마련했고 납품처도 크게 늘어났다. 쓰루오카(鶴岡) 시내에 한국 음식점을 열고, 야마가타 시내 대형 슈퍼의 푸드 코트에도 점포를 냈다. 한국 식문화 보급에도 힘을 써서 자치체와 NHK 강좌에서 10년 가까이 한국 요리를 가르쳤다. 또, 각지의 자치체 등에서 다문화 공생과 외국인에 의한 창업 등을 테마로 강연을 의뢰받는 일도 많아지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경영자가 되었다. 사업 확대와 아이들 교육을 고려해 2005년에 쇼나이 지방 중심지인 쓰루오카 시로 이사했다. 현재는 쇼나이 지방에 사는 외국인 아내들을 중심으로 종업원 26명을 두고 도쿄의 유명 슈퍼 체인점 78곳에 제품을 납품하기에 이르렀다.

순조로웠던 하루코 씨의 사업도 진재에 의한 물류 정지로 타격을 입었다. 도호쿠 지방에서의 택배가 거의 완전히 중지되었으며, 지역 내에서의 배달도 휘발유 부족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김치 공장의 작업도 중단하였다. 창업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녀는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때인 만큼 초조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요하지 않았다.<sup>6</sup>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거리가 없어진 종업원들도 안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하루코 씨의 마음은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내심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 재해지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그것은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이시노마키 시 오가쓰마치(雄勝町)에서 수산물가공업을 하던 사토(佐藤) 사장 부부의 안부였다.

하루코 씨는 사토 사장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녀 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창자(チャンジャ)’는 대구 내장을 가공한 것인데, 그 원재료를 매우 싼 도매값으로 제공해 준 것이 사토 사장과 전무 부부였다. 그때까지는 중개업자가 중간 마진을 비싸게 받았고, 때마침 일었던 한국 식재료 붐을 구실삼아 몇대로 가격을 높이기도 했다. 원재료 값 상승으로 경영이 위태로워진 하루코 씨는 사토 사장과 직접 담판을 하러 갔다. 중개업자가 값을 올린 사실을 몰랐던 그는 바로 그녀와 직거래할 것을 정하고, 결혼해 일본에 살면서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노력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염가로 제공해 줄 것을 약속했다. 사토 사장 덕분에 창자는 회사 간 판상품이 되었고 경영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다. 그러한 소중한 은인의 안부를 어디에 연락을 해봐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진이 난 뒤 12일째에 겨우 전화 연결이 되었다. 집도 회사도 전부 잃었지만 가족 전원이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난소가 좁아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지금은 고지대에 있는 별장에 묵고 있으며, 식료품도 연료도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즉매 이벤트에서 사용하던 조리 기

6 실제로 3월 말쯤 냉동 택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쿄 등에서의 주문은 순조롭게 회복해 갔다. 야마가타 시내의 푸드 코트 점포에서는 후쿠시마와 센다이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고, 모가미(最上) 강가의 휴게소에 있는 직관점은 태평양 쪽 관광지에 가는 것을 포기한 여행객들로 봄벼 예년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구 세트(업무용 프로판가스 포함)와 대량의 식료품을 차에 실었다. 다음날 오가쓰를 향해서 바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위 의견은 소극적이었다. 자위대밖에 들어가지 않는 재해지 한복판에 평범한 미니밴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안해했다. 다행히 3월 24일부터 도호쿠(東北)자동차도로가 일반차에게도 개방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하루코 씨가 가장 신뢰하는 종업원(일본인과 한국인 각 1명)이 동행해 주기로 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겨우 손에 넣은 휴대용 캔에 든 휘발유 40리터도 가지고, 3월 24일 새벽에 쓰루오카를 출발했다.

센다이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다. 그러나 거기서 이시노마키 시내까지는 6시간 이상(평소에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 걸렸다. 게다가 시내에서 오가쓰까지의 길은 곳곳이 유실되어, 자위대가 만든 가설 도로와 침수된 길 위를 달렸다. 도로 양 측에는 크게 부서진 자동차와 원형을 알 수 없는 자재가 쌓이거나 흩어져 있었다. 산기슭의 나무들만 다갈색으로 변색된 모습이 웬지 으스스했다.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 무렵에야 별장에 도착했다. 잇달아 차에서 내리는 짐을 보면서 사장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고맙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사토 사장은 훗날 당시를 회상했다.

하루코 씨 일행은 한 차례 업무용 조리기구 사용법을 시범 보인 후 서둘러 귀로에 올랐다. ‘여기서 1박하면 좋겠다’는 사장 부부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더 이상 마음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전등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길이었다. 헤드라이트 빛에 의지해 지진의 잔해를 피하고, 도로에 뚫린 큰 구멍에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달렸다. 동승한 2명도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갈 때는 무사히 통과했던 가설도로 앞에서 자위대원에게 정지 명령을 받았다. 야간에는 통행금지라는 것이었다. 폭이 좁은 도로의 양 옆은 바다처럼 되어 있었고 수심도 상당히 깊었던 듯했다. 산간 우회도로로 가라고 해서 그에 따랐으나, 임간도로(林道)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산 중턱

에 있는 길이었다. 멀리 빛을 발견하여 주민에게 다시 길을 물어가며 어렵게 이시노마키 시가지에 돌아왔을 때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 커뮤니티와 외부인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3월 상순 필자가 주재하는 ‘비교이민연구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호쿠 지방에 사는 외국인 아내와 가깝게 지내는 일본인 지원자 세 커플을 초청하여, 연구자 멤버들과 함께 토론하는 취지인 워크숍이었다. 하루코 씨에게도 참가를 부탁해서 일본에 온 이래 현재까지의 도정에 관해서 들었다. 워크숍에는 국립 민족학박물관의 다케자와 쇼이치로(竹沢尚一郎) 교수도 동석했다. 그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산리쿠(三陸) 연안을 대형 쓰나미가 휩쓸었다. 다케자와 교수는 진재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와테(岩手) 현 오쓰치초(大槌町)에 들어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민 주도 부흥 계획안 작성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마을의 주력 산업인 양식업과 어업은 초토화되고, 수산 가공 공장도 떠내려갔으나 재건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잔해 제거를 돕는 일로 얻는 수입도 곧 없어질 것이었다. 재해지의 고용 문제는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민 여성들 사이에 자기들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케자와 교수는 하루코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서울에서 일본의 산간벽지로 시집와 일본어도 모를 때부터 일을 도운 이야기와 산자락의 밭에 배추를 심고 김치를 담가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고용을 창출한 경험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활 재건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다케자와 교

수로부터 상담을 받은 필자는 곧바로 하루코 씨에게 연락했다. “할게요.” 즉답이었다.

여름에서 가을에 걸친 계절은 여름 축제와 가을 수확제 등의 이벤트가 연달아 있어서 하루코 씨가 제일 바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해서 10월 상순 이틀 동안 오쓰치를 방문했다. 필자도 코디네이터로 동행하게 되어, 약 두 달 만에 마을에 들어갔다. 잔해 철거는 전보다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아직 부흥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하루코 씨는 오쓰치의 세 지구[기리키리(吉里吉里), 고즈치(小鎚), 하코자키(箱崎)]를 돌며 정력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위에 외국인 여성이 한 명도 없을 때에 일본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많았고 외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이전에는 김치를 팔고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땅에 묻곤 했지만 김치의 다양한 활용법을 아는 한국인 친구가 늘어난 지금은 신김치도 나눠서 이용할 수 있게 된 일, 장사가 잘 안되거나 짓곳은 사람에게 방해를 받았을 때 밤새 해결책을 고민했던 일 등등. 모두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의 험난한 상황을 참고 잘 견디면 반드시 밝은 내일이 온다는 내용이었다. 또 기본적인 김치 담그는 법과 맛있게 만드는 방법 등 재료만 있으면 내일부터라도 김치를 시험 제작해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도 있었다.

강연 후에는 만든 김치를 함께 시식하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먹고 나서 연달아 질문이 날아왔다. 그 중에 많은 질문이 김치 만드는 법과 재료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거기에는 자기들도 상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었다. 하루코 씨는 개별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판매를 하려면 처음에는 물산전(物産展) 같은 이벤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거나, 모두 같은 앞치마(가능하면 고장 특징을 나타내는 로고를 넣은)를 입으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참가자에게 가르쳐주었다.

이틀 간 세 군대를 도는 강행군이었지만, 참가자의 열의에 하루코 씨도 피곤함을 잊을 정도였다. 특히 기리키리와 하코자키의 개최장에서는 지방 커뮤니티의 핵심 멤버가 모여들어 열띤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꼭 다시 오쓰치로 오세요’라거나 ‘다음에는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하루코 씨 공장에서 연수를 받는 것은 힘들까요’라는 문의까지 튀어나오기도 했다. 하루코 씨는 그녀들(대략 100명을 넘는 참가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의 일에 대한 열망을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잘 이해한다고 했다. “다음에는 김치 만들기 실연 강습회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박수를 받은 하루코 씨는 정말 기쁜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고 필자는 마키 씨를 연상했다. 마시지 지원활동을 하면서 국제 간 이주자 특유의 보람을 느꼈던 그녀를. 동시에 해변 취락에 형성된 응집성 높은 커뮤니티에서 외부인인 외국인 아내가 박수로 환영받는 광경이 회장 밖의 훤히 보이는 토대밖에 남지 않은 황량한 광경과 병존하고 있는 점에서, 대진재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 에필로그

한신·아와지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를 계기로 방재 연구 분야에서는 ‘재해의 민족지’를 작성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재해는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이문화’다.<sup>7</sup> 그런 이문화를 접한 이재민을 인터뷰함으로써, 재해라는 이문화의 총체를 그런 경험을 한 적

7 重川希志依, 「災害を理解する: 災害エスノグラフィーの試み」,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公開フォーラム 「災害の記憶」講演要旨集, 2005, 5쪽은 전문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田中聡·林春男, 「災害人類学の構築に向けての試み-災害民族誌の試作とその体系化」, 地域安全学会論文報告集(8), 1998과 林春男·重川希志依·田中聡, 『防災の決め手「災害エスノグラフィー」: 阪神·淡路大震災秘められた証言』, 日本放送出版協会,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게 기술하는 것이 ‘재해의 민족지’다. 재해의 물리적·공학적 측면과 병행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재해의 측면도 조사 연구를 해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방재 연구의 새로운 움직임은 매우 시사적이다.

민족지를 쓰는 일은 이제까지 인류학과 민족학의 특기였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외의 이문화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하지만 그 불문율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재해 연구자들로부터의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인류학자도 참가하는, 민족지적 접근에 의한 일본 국내의 재해 연구가 동일본대진재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6월부터 재해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온 필자는 ‘재해만이 이문화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땅도 사람들도 모두 이문화인 것은 아닐까. 재해지는 한순간에 오랫동안 그 땅의 문화를 만들어온 경관과 커뮤니티를 잃고, 문화와 관련이 깊은 생업을 잃고,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묘지와 신사를 떠나려보냈다. 이재민의 감성과 사고방식, 멘탈리티와 생활양식은 재해 이전의 일상을 누릴 때의 그것과, 또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재해 이전과 변함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그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해지와 이재민은 재해라는 급격하고 대규모의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국지적인 이문화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서 돌연 출현한 국지적 이문화의 다양한 차원과 측면을 시야에 넣으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재해지의 민족지’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아니,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진재는 ‘천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한다. 그것이 몰고 온 것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기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재해지의 민족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들어가며’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글은 ‘재해지의 민족지’ 그 자체는 아니다. 재해지에서 실시된 활동을 그린, 한 장의 거친 소묘에 지나

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스케치를 몇 장이나 레이어(층)처럼 겹쳐가면 어떨까. 어떤 면에서는 이 글은 그러한 시도 중 하나다. 앞으로도 재해지를 두텁게 기술하는 민족지를 목표로 한 장, 또 한 장 그려나갈 것이다. 재해지가 더 이상 이문화가 아닐 수 있는 그 날까지.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김효미(도쿄대학 박사/한국외국어대학 강사/한일비교문화 전공)가 번역하였다.